

# 영화와 디자인의 특별한 만남

전주국제영화제 · 관광거점도시 전주시 ‘100 Films 100 Posters’  
주제 행사 살롱 토크와 연계 전시 도입... ‘영화제 디자인’ 첫 주제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는 관광거점도시 전주시 사업과 연계해 ‘100 Films 100 Posters’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100 Films 100 Posters’는 2015년부터 시작된 전주만의 독창적인 부대행사로, 100명의 그래픽 디자이너가 영화제 상영작 100편을 자유롭게 해석하고 디자인한 포스터를 전주의 전시장과 거리에 전시해 대중이 영화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영화 포스터 전시 겸 이벤트 행사다.

지난해 10회를 맞아 기간과 공간을 확장한 100 Films 100 Posters는 올해도 전주의 다양한 명소에서 기존 영화 포스터 전시와 더불어 영화와 그래픽 디자인의 교차점을 확장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올해 100 Films 100 Posters는 관광거점도시 전주시가 주최하고 전주국제영화제와 사진책 출판사 ‘사월의눈’이 공동 주관한다.

우선, 상영작 100편에 대해 100명의 디자이너가 각자만의 포스터로 만들어 전시하는 제11회 100 Films 100 Posters는 팔복예술공장 이팝나무홀과 영화의거리에서 4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문화공관장 작당에서 열린다.

특히 올해부터 영화와 그래픽 디자인의 교차점을 확장하고자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사례와 이야기를 공유하는 ‘살롱’과 살롱과 연계한 ‘주제 전시’로 구성된 주제 행사를 최초로 진행한다. 살롱은 ‘영화제 디자인’을 첫 주제로 5월 4~5일 2일간 문화공관장 작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오픈(Open), 리뷰(Review), 크리틱(Critic) 등 총 3부 구성됐다.

주제 전시로는 국내 영화제 디자인을 조망할 수 있는 아카이브 전시와 내년 살롱의 주제인 ‘극장 시각문화’를 미리 만나볼 수 있는 ‘2026 미리보기: 극장 노스텔지어’가 각각 문화공관장 작당과 완판본문화관에서 진행된다.

이 외에도 특별전시 ‘포스터와 포스터’, 포스터 디자인 워크숍도 마련됐다. 특별전시 ‘포스터와 포스터’는 지난 10년간 100 Films 100 Posters를 통해 축적된 1,000종의 포스터를 새로운 관점과 방식으로 재해석한 전시다. 특별전시는 한 영화의 ‘100 Films 100 Posters’ 전시용 포스터와 ‘극장용 상업 포스터’를 나란히 배치해 두 포스터가 어떻게 영화를 다르게 표현하는지 조망하는 전시가 진행되며, 전주시립인후도서관에서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열린다. 포스터 디자인 워크숍은 영화 포스터 혹은 포



‘100 Films 100 Posters’ 포스터

스터 디자인에 오랜 경험이 있는 디자이너가 강사로 참여하며, 5월 17~18일 양일간 문화공관장 작당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4월 중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홈페이지(<https://www.jonjufest.kr>)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 푸른 자연... 보랏빛 낭만... 무주산골영화제 공식 포스터 공개

영화제만의 분위기 담아내

6월의 영화 축제 ‘제13회 무주산골영화제’가 6월 6일부터 8일까지 총 3일간의 개최를 앞둔 가운데 이를 알리는 공식 포스터를 공개한다.

무주의 자연을 스크린 상아 다양한 영화들을 소개하고 남녀노소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과 이벤트를 선보여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무주산골영화제’가 올해 열세 번째 시작을 알리는 공식 포스터를 공개해 눈길을 끈다.

이번 공식 포스터는 마치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 같은 인상적인 그림체가 보는 이들의 감성을 자극한다. 주황색의 오묘한 색감은 해가 떠오르고 저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다채로운 숲의 모습을 연상케 하며, 잎사귀들의 입체적인 표현은 영화제가 열리는 초여름의 푸른 정취를 느끼게 한다. 여기에 한 인물이 자유롭게 나무에 올라 영화제의 시작을 기다리는 듯한 모습은 영화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무주산골영화제’만의 고유한 특징을 나타내는 동시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영화 축제를 그려내 기대감을 더한다.

올해 공식 포스터는 ‘0.1’이라는 이름으로 할



‘제13회 무주산골영화제’ 공식 포스터

동 중인 아트팀이 맡아 ‘무주산골영화제’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고스란히 담아냈다. 유년 시절 보았던 애니메이션이나 그림책에서 영감을 받은 아트웍을 선보이는 ‘0.1’은, 베스트셀러 소설 ‘아몬드’ 표지 디자인으로 인지도를 쌓은 이후 여러 매거진과의 협업 및 국내외 다양한 아트북 페어에 참가하며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이들의 개성 있는 그림체를 활용한 실스크린, 재봉, 핸드 바인딩 등 수작업 제품들은 물론, 다양한 형태의 책을 통해 작품 세계를 표현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0.1’은 이번 공식 포스터 작업에 대해 “무주산골영화제가 가진 독특한 매력을 생각하다가 나무 위에 올라 높이, 또 멀리 영화를 본다면 어떤 기분일까 상상해 봤다. 초여름의 푸른속, 색다른 각도와 거리감을 통해 영화의 특별한 고결한 인상을 각자의 방식으로 느끼기를 바란다”라고 작업 소감을 밝혔다.

올해 공식 포스터를 공개한 ‘제13회 무주산골영화제’는 6월 6일부터 총 3일간 무주군 일대에서 개최, 각국의 재미와 감동 가득한 영화들을 비롯해 공연, 책방, 토크, 캠페인 등 무주의 자연 속에서 특별한 문화 이벤트를 소개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 전북문화관광재단, 5대 종교 아우르는 ‘성지혜움길’ 본격 추진

종교관광해설사 17명 배출

내달 2~3일 인플루언서 대상

5월 외국인들 대상 시범 운영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5대 종교를 아우르는 ‘성지혜움길’을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재단은 전북을 대표하는 종교 성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를 발굴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주와 익산, 완주 등 4개 시군에 기독교·천주교·불교·원불교·천도교 등 5대 종교의 종교 성지를 효과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치유 순례길인 ‘성지혜움길’ 코스를 개발했다.

이와 함께 종교관광해설사 양성 교육을 통해 총 17명의 해설사를 배출했다. 교육 과정은 △성지혜움길 해설사 역할의 이해 및 코스 기획, △코스별 스토리 시나리오 작성 강의 및 실습, △지역별 현장 답사와 전담 코칭 피드백 수행 등 3개의 전문 과정으로 진행됐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23일 전주·익산·완주 지역에서 성지혜움길 시범 사업을 세 차례에 걸쳐 운영했다. 1차는 시군 문화관광 관계자, 2차는 일반인, 3차는 종교인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재단이 양성한 종교관광해설사를 현장에 투입해 실전 점검과 보완의 기회로 삼았다.

이어 오는 4월 2~3일에는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4차 시범 사업을 운영해 온라인 홍보



전북특별자치도 성지혜움길 스토리 콘텐츠 및 치유순례 종교해설사 교육 수료식

(사진=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제공)

확산을 유도하며, 4월 5일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5차 시범 사업을 통해 성지혜움길의 상품성을 검증하고 만족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재단은 세종·충남과 연계한 성지혜움길 코스를 올해 상반기 내에 OTA(온라인 여행사)에 등록할 예정이며, 누구나 성지혜움길을 쉽게 접하고 종교관광을 통해 치유와 힐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힘을 받침이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이번 교육을 통해 배출된 전문 해설사들이 성지혜움길을 더욱 생동

감 있게 전달하고 종교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관광마케팅팀(063-230-748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자름길

## ‘함께 만드는 전북 MICE’

27일 전주 라한호텔서 ‘2025 전북 마이스 데이’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오는 27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2025 전북 마이스 데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함께 만드는 전북 MICE’를 슬로건으로 전북 마이스(MICE: 회의, 포상 관광, 컨벤션, 전시) 산업의 저변 확대와 민관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얼라이언스(협의체) 회원사 및 관련 사업 소개, △전시컨벤션센터 소개, △특별 강연, △네트워킹 순서 등이 있다.

특히, 특별 강연에서는 마이스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전북 마이스 얼라이언스 활성화 전략과 성공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지역 마이스 생태계가 직면한 과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네트워킹 시간에는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현장에서 이뤄지는 실질적 교류는 기간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전북 마이스 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려면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민관 공동의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도출해 전북이 마이스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마이스육성센터(063-230-7465~6)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은 지난 24일 4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지사장 고재철)와 전문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전통문화 활성화 · 숙련기술 우대 풍토 조성

전주문화재단,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와 협약 체결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은 지난 24일 4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지사장 고재철)와 전문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최락기 대표이사와 고재철 지사장 등 양기관 관계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통문화 관련 국가자격시험 및 기능경기대회 진행을 위한 노력 △전주문화재단 시설을 국가기술자격 시험 및 기능경기대회 장소로 활용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최락기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통문화 분야 숙련기술인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통기술이 지속적으로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재철 전북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양기관이 지역사회와 연계한 숙련기술 장려 사업을 확대하고, 전통문화 보전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자”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 국립창극단 신작 ‘소리드라마 심청’ 주인공 공개 오디션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 · 국립극장 공동 제작... 2025 소리축제 개막공연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이왕준)는 국립극장(극장장 박인건)과 공동으로 2025년 소리축제 개막공연 ‘소리드라마 심청’의 주인공 공개 오디션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소리드라마 심청’ 전주세계소리축제와 국립극장 전속단체 국립창극단(예술감독 유은선)이 공동제작하는 작품이다. 오는 8월 13~14일 2025 소리축제 개막공연으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9월 3~6일까지는 국립극장에서 초연된다.

이번 오디션을 통해 ‘심청’과 ‘노파심청’, ‘심봉

사’역으로 열연할 배우를 각각 선발한다. 세 배역 모두 더블 캐스트로 구성되며, 각 배역의 다른 한 명은 국립창극단 단원 중에서 캐스팅된다. 최종 선발된 배우는 국립창극단 단원과 나란히 무대에 오를 기회를 얻게 된다.

접수 기간은 4월 2일까지로, 1차 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해 4월 10일 2차 실기심사를 진행한다. 자세한 정보는 전주세계소리축제 홈페이지(<https://www.sorifestival.com>)와 국립극장 홈페이지([www.ntok.go.kr](http://www.ntok.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 ‘나는 반딧불’ 가수 황가람과 함께하는 뮤직 토크콘서트

오늘 무주에체문화관 다목적홀서... 무주군, 황가람에 명예군민증 수여

‘나는 반딧불’ 가수 황가람과 함께하는 희망 뮤직 토크 콘서트가 26일 저녁 7시 무주에체문화관 다목적홀(대공연장)에서 개최된다.

이날 공연은 음악을 통해 힐링의 시간을 갖고 나아가 반딧불이의 고장 무주를 마케팅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는 것으로, 무주군(군수 황인홍)이 주최하고 사)무주반딧불축제



위원회(위원장 박찬주)가 주관한다. 박정희 아나문서의 사회로 ‘나는 반딧불’을 비롯한 ‘기억 속의 먼 그대에게’, ‘How am I supposed live without you’, ‘미치게 그리워서’ 등 가수 황가람의 노래와 인생, 그리고 무주와의 인연 등에 얽힌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다. 군민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군은 이날 가수 황가람 씨에게 노래를 통해 반딧불이의 고장 무주를 알리고 반딧불축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데 대한 감사를 표하며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